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65

요한계시록에서

(14)

어린양-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심

성경: 계 4:2-3, 22:1-5, 21:23, 겔 1:22, 26-28

**I. 어린양-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신다—계 4:2-3, 22:1-5, 21:23.**

- A.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양을 위하여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한 분, 즉 어린양-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구속자라는 것을 가리킨다—22:1, 4:2-3.
- B.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를 공급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 C. 이것은 어떻게 삼일 하나님—하나님과 어린양과 생명수로 상징되는 그 영—께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보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분배하시는가를 묘사한다.

**II.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다.**

- A.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가정생활과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이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되어야만 한다.
- B.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주님,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취할 수 있는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머리의 권위 아래 온 종일 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주님, 당신의 보좌를 저의 생활 안에 세우소서. 당신의 보좌를 저의 존재의 중심에 세우소서. 주님, 저의 일상 생활과 더불어 저의 하루 온 종일을 당신의 보좌 아래 둡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매일 아침 삼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 C.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취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는 흐름을 누린다. 그 강은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구속하신 어린 양과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과정을 거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영과 함께 흐른다.
- D.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생명 공급과 생명의 길이 있는 생명의 흐름을 누린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22:2-5.

**III. 에스겔 1 장은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맑은 창공을 갖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절, 26 절.**

- A. 살아있는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창공은 수정과 같이 맑고, 어마어마한 수정으로 된 큰 궁창과 같다. 더 나아가 이 창공은 확장되고 있으며, 수정과 같이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다—22 절.
- B.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도 막힌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주님과 또한 다른 이들과 철저히 맑은 교통을 갖는다.

- C.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창공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이다—행 24:16.
- D. 보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임재이다.
1. 주님의 임재는 항상 그분의 보좌와 함께 있다. 주님의 보좌는 삼층천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계 4:2-3, 히 4:16, 비교 딤후 4:22.
    - a.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10 절),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 b.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벨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다—창 28:12-17, 요 1:51.
    - c.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 d.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2. 수정같이 맑은 궁창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가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것임을 가리킨다. 교회 안의 권위는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이다.
  3.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보좌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롬 5:17, 21, 비교 마 28:18-20.
  4. 보좌는 청옥(靑玉)의 모양을 갖고 있다. 청옥(靑玉)은 파랑색으로 되어있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임재의 하늘에 속한 상황과 상태와 분위기를 상징한다—출 24:10.

**IV. 에스겔 1 장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사람같이 보이시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지사 사람이신 것을 가리킨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이시다—26 절, 28 절.**

- A.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시다—요 1:1, 14, 6:62, 행 7:56, 59-60.
- B.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부터 보좌 위에 한 사람이 계시었다. 천년왕국과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전히 보좌 위에 한 사람이 계시실 것이다—마 19:28, 계 22:1, 3.
- C.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의도는 그분 자신과 사람을 연합시킴으로 사람과 같게 되시고,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6-28, 비교 사 14:12-14:
  1. 보좌 위에 계신 분과 네 생물은 둘 다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땅 위의 네 생물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의 표현임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겔 1:5, 딤후 3:15-16.
  2.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으심으로써 그분의 표현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사람을 얻으시기를 갈망하신다. 나아가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사람이 보좌 위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엡 3:16-21, 계 3:21, 5:10, 20:4, 22:5, 마 9:28.
  3. 개척자와 선주자이신 주 예수님은 길을 여시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고 보좌 위에 앉으셨다.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르고 있다—히 2:6-12, 계 3:21, 22:5.

**V. 에스겔 1 장은 보좌 위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두 방면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그분의 허리 이상의 모양은 합금(合金)과 같고, 그분의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과 같다—27 절.**

- A. 합금은 금과 은이 합해진 빛나는 금속이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금과 은의 성분으로 구성된 합금은 어린양-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4 절.
- B. 사람의 윗 부분, 그의 허리부터 머리까지는 느낌과 감각의 부분으로서 그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본성과 기질에 따라서 합금의 모양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 C. 사람의 몸의 아랫 부분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허리부터 아래까지 불의 모양은 하나님의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의 주님의 모양을 상징한다
- D.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불로서 오시어 빛 비추시고 감찰하시고 태우신다. 그런다음 그분은 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나는 단쇠가 되시며,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으로 충만된다.
- E.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태워버리는 불(히 12:29)이신 주님에 의해 우리에게서 불태워진 후에, 단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지실 것이다.

**VI. 에스겔 1 장은 보좌 위의 사람 둘레에 빛나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의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28 절, 계 4:3.**

- A. 노아의 시대에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사람 및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창 9:13.
- B. 무지개는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기본 색깔로 산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빨강은 불의 색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한다. 노랑은 합금의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파랑은 청옥 보좌의 색깔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시 89:14).
  1.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은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신성한 속성들이다—창 3:24.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분은 우리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시다—고전 1:30.
  3.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의와 거룩과 빛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것은 타락한 이들인 우리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무지개 모양이다.
  4. 무지개 모양의 기초(계 21:19-20)를 갖고 있는 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 받은 이들의 집합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밝은 빛을 반사하는 무지개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증거할 것이다.
  5. 에스겔 1 장에 묘사된 대로,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그러한 무지개로 완결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